

2026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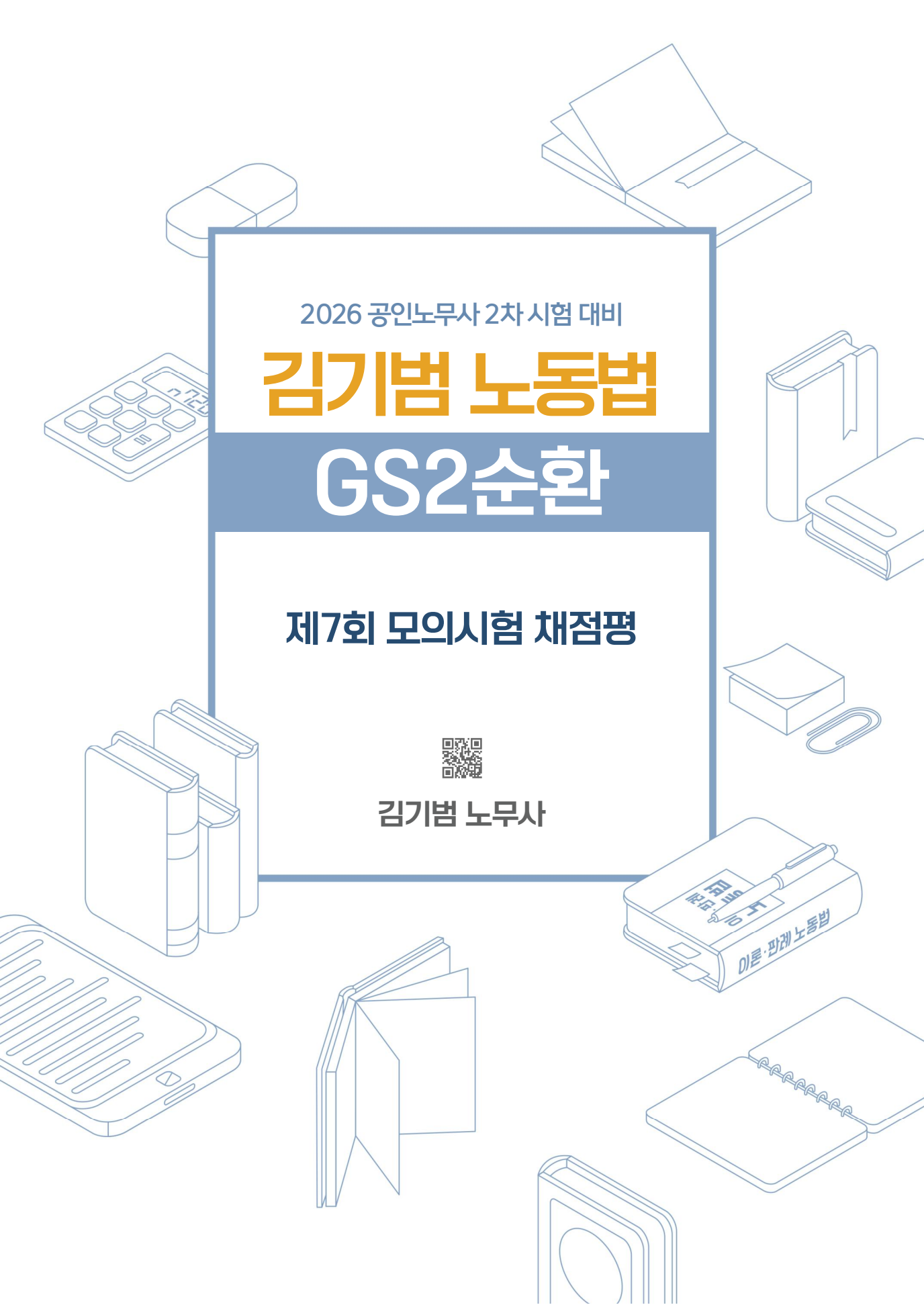
김기범 노동법

GS2순환

제7회 모의시험 채점평



김기범 노무사



제7회 모의시험 채점평

작성자 : 권상혁 노무사

〈채점자〉

권상혁 노무사(SH) sanghk007@naver.com	김성현 노무사(KSH) kkksh512@naver.com
장연희 노무사(Hee) cpla4208@naver.com	이주영 노무사(Y) nomoojy@naver.com
한채빈 노무사(chaebin) llhr119@naver.com	강준경 노무사(KJK) cplajun24@gmail.com
전경현 노무사(Hyun) cplahyun424@kakao.com	김태진 노무사(TJ) Cplalaw0601@naver.com
조주현 노무사(cjy) cjylabor@naver.com	하은영 노무사(HEY) haeun0529@naver.com
심상술 노무사(triss) laonsmile0915@gmail.com	김서영 노무사(SY) wdcgirl@naver.com
강여진 노무사(ZZIN) nodong900@kakao.com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기 7회차 마지막 채점평을 맡은 34기 권상혁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기범쌤 클래스 여러분께 제 채점평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채점평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었기에 채점평을 쓰는게 제 동기부여 중 하나였습니다.(여러분도 채점평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며 동기부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채점평을 크게 두가지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여러 부수의 답안을 채점하는 첨삭자의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지 캐치하여 그 부분을 더 힘을 줘 공부하는 용도였습니다. 남들이 못 쓰는 걸 잘 쓰면 돋보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채점평 역시 빈약한 부분을 위주로 작성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는 멘탈 관리였습니다. 밥먹을 때 기본서 읽기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기엔 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채점평을 가지고 나가서 가볍게 읽으며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첨삭자분들이 나가며에서 써주신 위로들을 읽고 멘탈을 부여잡았습니다.(제가 극F라.. 아직도 캡처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 첨삭평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첨삭평 시작하겠습니다.



1-1문. 폐업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평

2기 마지막이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쟁점 중 하나여서 그런지 대체로 잘 써 주셨습니다.

다만 일반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포섭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가 많은 문제일수록 사실관계를 최대한 끌어와 포섭하여 작성한 답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적지 않고 바로 **정리해고**로 쓰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한 후 (이하 정리해고라 함)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 부족하면 정리해고로 쓰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 쓰는 게 맞긴 합니다.)

I. 논점의 정리 (2점)

확실히 1-1문이라 그런지 논점의 정리가 풍부한 답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점의 정리에는 크게 네 가지를 썼던 편인데, **등장인물 / 쟁점 / 논의의 실익 / 문제 풀이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문제에선

1. 갑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A회사는 폐업해고라고 주장하는바~
2. 일부 사업부문 폐업에 따른 해고가 폐업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3. 해고의 성질에 따라 정당성 판단기준이 달라지는바
4. 이하에서 법규정과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네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논점의 정리 작성한 답안이 이해도가 돋보였습니다.

II. 폐업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점)

1. 폐업해고

폐업해고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판례 입장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통상해고의 개념 및 정당성에 대해 논해주신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판례 입장** 누락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부분 아예 누락하신 답안이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사안에서 폐업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및 24조에 의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반드시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Ⅲ.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격 (8점)

1. 기본원칙 (3점)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에 관한 기본 판례입니다.

대부분 결론을 잘 써주셨긴 했으나, 논거가 빈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 폐지가 아니라 사업 축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은 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쓰기 보다는 논거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체적 판단기준 (4점)

판단 요소가 나오는 문제에서 요소를 빼먹는건 치명적입니다.

해당 사안에선 총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1.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

해당 부분 ‘조직 및 운영상’을 누락하거나 ‘장소적 분리’를 써주신 답안이 많았는데 ‘장소적 분리’는 1-2문 즉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나오는 판례 용어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 사업체로 취급

‘별도 사업체로 취급’을 누락하신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는 그 자체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현출해주시는게 좋아요.

3.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분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매우 길어서 외우기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면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배치가 불가능할 정도’ ‘업무 종사의 호환성’ 정도인 것 같습니다.

3. 입증책임 (1점)

누락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써주신 분들이 눈에 확 띄었

습니다. 입증책임이 정말 누락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서브노트에 입증책임 있는 부분은 전부 체크 표시해두고 공부했습니다. 챙겨주시면 이해도 돋보일 것 같아요.

IV. 사안의 적용 (10점)

목차화해서 포섭해주신 답안들이 가독성도 좋고 이해도도 더 돋보였습니다. 해당 문제의 포섭은 크게 세 축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는 정리해고임
2. 다만 예외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3. 본 사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칙과 예외 해당 여부 목차화해서 적어주시면 가독성이 한층 돋보입니다.

1. 기본원칙

원칙적으로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 /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므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2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및 입증책임 녹여서 현출해주신 답안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2. 전선사업부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소별로 목차화한 답안이 일부 있었는데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분리 독립’ 부분에 대한 포섭이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실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문제 복붙 수준으로 끌어오셔도 됩니다. 많은 분이 내려는 결론을 부정하는 요소는 포섭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잘 포섭하시면 이해도가 돋보입니다. 예컨대 사안에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여 물적 분리로 볼 수 있으나~ 로 시작한 답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실관계는 하나의 요소에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정은 3번 요소를 긍정하는 사실관계이면서 동시에 1번 요소를 긍정하는 사실관계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 누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 사업체로 취급’ 부분의 경우 문제에서 너무 대놓고 사실관계를 줬기에 거의 모두가 잘 포섭해주셨습니다.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분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전환 배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부분의 경우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전환 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 혹은 모두 누락하고 결론만 낸 답안이 꽤 있었습니다.

V. 결론 (1점)

결론은 **묻는 말에 대한 해답**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A회사가 갑에게 행한 해고의 성격에 대해 논하라”가 질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셔야지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로 결론 내시면 조금 어색합니다.



1-2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총평

1-1문과 거의 세트로 공부하는 쟁점이다 보니 역시 1-1문과 마찬가지로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짜잘짜잘한 디테일을 놓친 답안이 꽤 있었는데 아래 목차별로 논해보겠습니다.

I. 논점의 정리 (2점)

마찬가지로 등장인물 / 쟁점 / 논의의 실익 / 문제 풀이 방향 모두 서술해주신 답안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회사는 전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2. A회사가 행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3.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인바
 4.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 법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입니다.

II. 법규정 (3점)

근로기준법 24조 1항과 5항이 메인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법규정을 모두 적어주신 답안도 몇몇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 "정리해고가 정당한가"가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가"이므로 4요건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법규정 복붙으로 적어주신 답안이 더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뒷부분이 빈약해져요)

또한 5항 즉 효력규정임을 누락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입증책임 여기서도 역시 누락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물론 꼭 법규정에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목차 빼서 써주셔도 됩니다. 입증책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II.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 (9점)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 판단기준 (2점)

해당 판례는 다들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가점사항이긴 하나 종래 학설 및 연혁을 소개해주신 답안이 이해도 돋보였습니다.

2. 긴박성 판단시점 (1점)

누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쟁점인 문제에선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판례가 그리 길지도 않으므로 챙겨주시면 좋아요.

2.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6점)

(1) 기본원칙 (2점)

해당 판례 역시 누락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판례 쓰기 전에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고 서술해주신 답안들이 이해도가 돋보였습니다. 문제의 소재로 목차 빼서 써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일부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등의 경우 (2점)

역시 요소가 나오는 판례는 요소 빼먹으면 너무 치명적입니다.

1.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

마찬가지로 '장소적'을 누락하거나 '조직 및 운영상'이라고 쓰신 분들 다수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챙겨주세요.

2. 재무 및 회계가 분리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선 **별도 사업체로 취급**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주의해주세요.

3.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경우

꽤나 많은 분들이 누락하셨습니다. 저는 서브노트에 요소 나오는 판례는 옆에 요소 개수를 적어뒀습니다. 절대 누락하시면 안돼요 πππ

(3)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경우 (2점)

마찬가지로 요소가 두 개입니다.

1.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 해당 문구 누락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요소도 저 자체로 키워드라 생각하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은 다들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일부 사업부문 폐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판례가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언급한 답안이 이해도가 돋보였습니다.

IV. 사안의 적용(10점)

해당 문제의 포섭 역시 크게 세 축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일부 사업 폐지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음
2.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를 불러올 우려 또한 없음

2번과 3번의 순서는 무관합니다. 역시 목차화해서 쓴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1.기본원칙

여기서 **상시 근로자 및 입증책임까지** 포섭해주신 분들이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원칙은 **기업 전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점**은 많이들 써주셨으나 사실관계 활용하여 전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는 점** 포섭 안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결국 답은 원칙으로 푸는 것이므로 포섭해주셔야 합니다.

모답 기준으로는 여기 배치되어 있긴하나, 많은 분들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지** 목차를 빼서 서술해주셨습니다. 물론 너무 팬찮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의외로 **전선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다는 점** 언급 안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세요!

2. 전선사업부가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물론 1-1문과 포섭구조가 거의 동일하긴 합니다. 다만 일반론에 양 압박이 심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끌어와서 포섭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1-1문에서 본 바~ 하고 바로 결론내면 상대적으로 너무 부실해보였습니다.

V. 결론(1점)

마찬가지로 묻는 말에 대답해주세요. 물음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가’**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쓰신 답안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2문.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총평

다들 2문을 가장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일반론 누락도 거의 없고 포섭 역시 좋았습니다.

I. 논점의 정리 (2점)

해당 문제 역시 등장인물 / 쟁점 / 논의의 실익 / 문제 풀이 방향 예시로

시작하겠습니다.

1. 을은 A회사가 행한 해고가 징계절차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바
2. A회사의 해고가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성이 부인되는지 문제된다.
3. 정당성이 부인된다면 해고가 무효인 바
4.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규정 및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례입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입니다. 다만 보통은 2문쯤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쟁점을 챙기셔야 해요. 모의고사 배점이긴 하나 논점의 정리는 2점입니다. 여기서 시간 쓰시다가 가장 중요한 포섭 못하시면 안돼요 ㅠㅠ

II. 징계의 절차적 제한 (6점)

1. 문제의 소재 (3점)

모답 기준으로 문제의 소재이긴 하나 기본원칙으로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써주셨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는 점이 메인입니다. “따라서 자치 규범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검토한다.” 라고 연결고리 잡아주신 답안들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아니긴 하나 해고에 대해선 예고나 서면 통지 규정을 두긴 한 다라고 써주신 답안도 안다고 티 내는 용도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사안에선 묻지 않았으므로 안 써도 무방하긴 합니다.

2. 자치규범상 절차준수와 징계의 정당성(3점)

역시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와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문구 복붙해서 써주신 답안들이 돋보였습니다.

III. 구체적 검토(6점)

1. 소명권 부여(3점)

자치규범상 소명권 부여 규정이 있다면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소명권 부여 방식을 누락하신 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역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구체적 사례(3점)

마찬가지로 거의 다 잘 써주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사전통보의 취지를

물각'과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문구 그대로 현출해주신 답안이 더 돋보였습니다. 또한 30분 전 통보 판례를 직접 소개해주신 답안도 이해도가 뛰어나 보였습니다.

IV. 사안의 적용 (10점)

1. 기본원칙

여기서 상시근로자 혹은 입증책임 부분까지 포섭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포섭 첫인상부터 잘 쓰셨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2. 소명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소명권 부여 규정이 있으므로 소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각보다 누락하신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물론 메인 쟁점은 통보가 적법한지이긴 합니다만 결국 소명권을 부여해야 하니까 통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3. 소명권을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여부

다들 너무 잘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판례 문구를 활용한 포섭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 할 수 없다” 라던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같은 포섭입니다. 결국 포섭은 앞서 본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이므로 판례 문구 활용하여 포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V. 결론 (1점)

세 번 말했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입니다. 그럼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혹은 “징계는 무효이다” 보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로 결론 내야 합니다.



나가며

공부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부족했던 부분을 너무 지적만 한 느

낌이네요....ㅎㅎ

제가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2기 끝날쯤에 제가 첨삭한 답안지만큼 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다들 너무 잘 써주셨고 잘하고 있어요!

물론 틀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때요? 실제 시험에서 틀린 것 보단 낮잡아요! 저는 현동차에 합격했는데 아직도 생동차 때 박살 난 문제는 절대 안 까먹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까먹어지지 않더라고요. (위로용 멘트 같지만 진짜입니다. 매각위로금 문제인데 지금도 현출하라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틀린 분들이 나중에 틀린 주제 마스터하고 날라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보다는 정진이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거예요!

나가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얼마전에 우연히 카페에서 2기가 끝나면 70퍼 이상은 숙지해야 한다는 글에 멘탈이 터지신 분들이 많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3기 끝날 때 까지도 70퍼 이상은 숙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 시험은 시험 전 날에 1회독을 하기 위한 공부예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텐데 어떻게 "최소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잡겠어요. 그러니 너무 염려치 마시고 당장의 공부에 노력을 쏟는게 더 의미 있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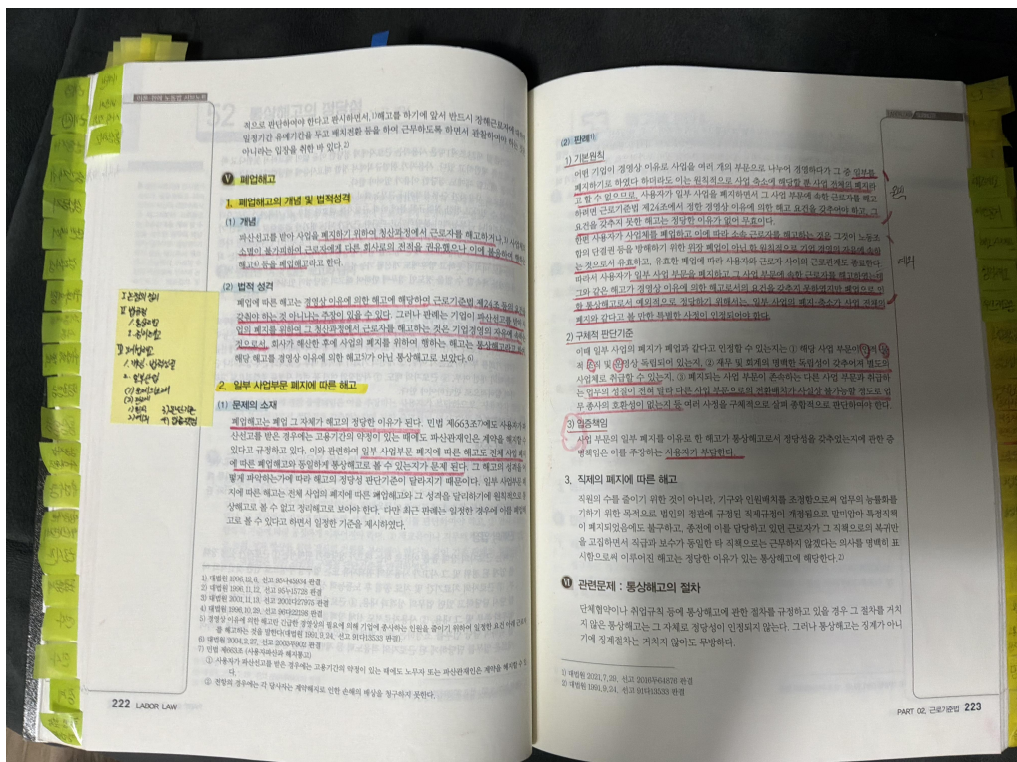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스스로가 미워질 만큼 무기력함에 빠지고 자기혐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랬었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떨어지는 미래를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는 가지만 그냥 길게 보지 마시고 당장 이번 주 모의고사 범위, 그것도 길면 그냥 오늘 뭐해야하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 힘든 시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었거든요! 그냥 직업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안한 상상보다는 내가 붙은 모습을 상상하며 자극받고 동기부여 받는 게 한 200배?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ㅎㅎ

제가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가사예요

어쨌든 인생은 딱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순간 내가 기억할 만한 건
잠에서 깬 나일 것 같어
- Always awake -

여러분이 꿈을 위해 달리시는 시간이 훗날 멋진 기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글거려서 전 이만 도망치겠습니다...ㅎ)

날씨도 더운데 2기까지 달려오시는 여러분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기 종강 기념으로 맛있는거라도 꼭 드세요 ㅎㅎ



제7회 모의시험 배점표

[1-1문] 폐업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I. 논점의 정리(2점)
- II. 폐업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개념(4점)
- III.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격(8점)
 - 1. 문제의 소재(가점)
 - 2. 기본원칙(3점)
 - 3. 구체적 판단기준(4점)
 - 4. 입증책임(1점)
- IV. 사안의 적용(10점)
- V. 결론(1점)

[2문]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 I. 논점의 정리(2점)
- II. 징계의 절차적 제한(6점)
 - 1. 문제의 소재(3점)
 - 2. 자치규범상 절차준수와 징계의 정당성(3점)
- III. 구체적 검토(6점)
 - 1. 소명권의 부여(3점)
 - 2. 구체적 사례(3점)
- IV. 사안의 적용(10점)
- V. 결론(1점)

[1-2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I. 논점의 정리(2점)
- II. 법규정(3점)
- II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9점)
 - 1. 문제의 소재(가점)
 - 2. 기본적 판단기준(2점)
 - 3.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6점)
- IV. 사안의 적용(10점)
- V. 결론(1점)